

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

학교	남경사범대학교	성명	왕몽매	학년	3	생년월일	1989년 1월 31일
----	---------	----	-----	----	---	------	--------------

금상

100

200

300

400

500

양심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
 게 해서 숨어서 한참 동안 양심이 라는
 것 을 나는 버렸다. 불쌍히 나에게 버림
 받은 양심은 어두운 구석에서 슬프게
 흐느꼈는데 나는 내 눈물 감고 내 귀
 를 막고 그에게 시련을 돌려 주지 않
 았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났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집안의 밑가루 장사때문에
 바빠졌다. 우리 집의 희망은 하얀 밑가
 루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
 였다. 나와 동생의 만만치 않은 학비,
 어머니의 심장병 치료비, 그리고 매일매
 일의 생활비를 다 밑가루를 팔아서 버
 는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 해 여름
 의 장사가 유난히 잘 만 됐다. 동네에서
 아주 큰 슈퍼가 생겨서 그랬을까? 나도
 잘 물렸다. 하지만 나는 하나의 사설을
 잘 알았다. 우리 집의 형편은 날로 더
 욱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팔리지
 않은 밑가루로 가득 찬 창고를 바라보
 시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 하루하루
 비어가는 어머니의 약병, 그리고 거의

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

학교	남경사범대학교	성명	왕몽매	학년	3	생년월일	1989년 1월31일
----	---------	----	-----	----	---	------	-------------

100

200

300

400

500

매일 새벽까지 책상 옆에 처박혀 공부
 에만 몰두하는 동생의 야원 모습은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창고에 쌓인 밀가루에 곰팡이 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족을 도와주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다. 화학을 배운 나
 는 상한 밀가루에 어떤 화학물질을 섞
 으면 원래보다 훨씬 하얗고 보이고 맛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
 창고에 쌓인 밀가루를 슈퍼보다 많이
 반 가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팔면 우
 리도 돈을 벌 수 있겠다. 아버지께 말
 씬을 드리려던 참에 어머니의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부모님은 가까운 도시
 에 병보러 가셨다. 친척들의 따가운 눈
 호에서 비겁하게 치료비를 번리신 아버
 지의 모습에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남겼다. 놀직히 그 전에 나쁜 짓을 하
 려는 마음에 너무 나도 불안했으나 이제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다.
 이 직후에 부모님은 돌아오셨다. 창
 고에서 반 정도 사라진 밀가루를 보시
 며 아버지는 눈을 둥그렇게 뜨셨다. 아
 버지에게서 칭찬을 들으려는 마음을 품
 고 내가 밀가루를 팔아서 번 돈을 손에

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

학교	남경사범대학교	성명	왕몽매	학년	3	생년월일	1989년 1월 31일
----	---------	----	-----	----	---	------	--------------

주 고 아버지 앞에 서 있었 다. 너무 볼
 망 하 게 도 아버지 입에 서 나 온 말 씀 은
 따 뜻 한 칭 찬 이 아 니 라 말 가 루 를 누 구 에
 게 팔 았 는 거 기 먹 이 나 나 는 절 문 이 었 다.
 그 리 고 그 것 을 물 으 신 아 버 거 의 목 소
 리 가 몹 시 떨 렸 다.
 아 버 지 의 넓 고 까 칠 한 손 바 닥 은 너
 먼 곳 에 무 겁 게 떨 어 졌 다. 그 순 간 먹 을
 한 눈 물 을 더 이 상 못 참 아 떨 기 버
 렸 다. “아 버 지 가 책 하 게 사 셔 서 뭐 하 세
 요? 망 심 같 은 값 싼 것 을 목 씬 처 럼 지 키
 셔 서 뭐 하 세 요? 우 리 왜 이 렇 게 가 난 하
 게 살 아 야 돼 요? 정 말 미 워 죽 겠 어!” 차
 갑 게 도 아 버 지 는 한 마 디 만 나 에 게 던 지
 고 나 가 셧 다. “빨 리 옷 입 고 나 와. 밖 에
 서 기 다 름 게.”
 네 가 꿈 도 못 꾀 일 은 그 날 에 아 버
 지 가 나 를 데 리 고 동 네 에 서 한 집 한 집
 찾 아 가 셔 서 우 리 집 의 말 가 루 를 써 샅 느
 냐 고 물 으 셧 다. 산 사 람 들 에 게 아 버 지 가
 돈 을 돌 려 주 시 고 말 가 루 를 돌 려 달 라
 고 하 셧 다. 그 리 고 반 복 반 복 ‘미 안 합 니 다’
 ‘죄 뎡 합 니 다’를 하 셧 다.
 집 으 로 갔 을 때 이 미 밤 열 시 나 넘
 은 때 었 다. 아 버 지 는 묵 묵 히 앞 에 서 리

제 4회 전 중국 한국어 백일장

학교	남경사범대학교	성명	왕몽매	학년	3	생년월일	1989년 1월 31일
----	---------	----	-----	----	---	------	--------------

어	카	를		말	며		가	셨	다		거	기	에		날	린		말	가
죽	은		내	가		‘	종	은		방	법	’	으	로		판		말	가
죽	다		조	용	한		밤	건	에		리	어	카	의		바	퀴	가	
죽	은		소	리	만		들	렸	다										
			‘	아	버	지	...	그	거	...		입	을		열	어		무	도
																			말
			하	고		눈	있	는	데		왜	니		모	르	게		목	이
			메	어		왔	다		“	빨	리		가	자	!	네		어	머
																			니
			기	다	리	고		있	어	!”	아	버	지	가		갑	자	기	